

GT
GLOBAL TECH KOREA Industrial Policy Review
글로벌 산업정책동향

Europe Weekly Brief
- 4월 2주차





▶ CONTENTS

1. 글로벌 게이트웨이: 2022년 유럽개발협력의 날 개최
2. 독일, 클라우드 공동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관련 기업 지원 발표
3. 영국, 미래 혁신 에너지 기술에 3억 7,500만 파운드 투자 발표
4. 노르웨이-스웨덴, 탄소 포집 및 저장 부문 협력 강화 추진

글로벌 게이트웨이: 2022년 유럽개발협력의 날 개최

2022년 유럽개발협력의 날(EDD)가 6월 21일-22일 ‘글로벌 게이트웨이: 연결된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EDD 행사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 이행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전세계 고위대표들이 모이게 된다.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디지털, 기후 및 에너지, 운송, 보건, 교육 및 연구와 같은 5개의 핵심 주제를 다루며 각 지역별 지리 정치학적 배경과 지속 가능한 자금조달에 대한 별도의 세션이 준비될 예정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국제규범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역외 인프라 투자계획이다. 2022년 EDD는 브뤼셀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며 전세계 약 2,500명의 오프라인 참석자와 약 만명의 온라인 참석자 수를 예상하고 있다.

<출처>

Global Gateway: President von der Leyen announces major event on 21-22 June, 2022.04.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393

독일, 클라우드 공동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관련 기업 지원 발표

독일 연방경제기후행동부(BMWK)가 유럽 클라우드 공동이해관계프로젝트(IPCEI)의 일환으로 총 26개 독일 기업의 프로젝트에 7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하고자 한다. BMWK의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장관은 이에 대해 “유럽은 유럽 클라우드를 통해 EU의 디지털 주권과 경쟁력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독일 기업은 더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프로세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2개 EU 회원국에 속한 총 159개의 기업이 클라우드 IPCEI에 참여해 직접적으로 미래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총 52억 유로 이상을 투입했으며 독일은 총 투자금액 가운데 약 15억 유로를 지원한다.

<출처>

Cloud IPCEI in the starting blocks: 26 German companies and 750 million euros in funding, 2022.04.08.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4/20220408-cloud-ipcei-in-den-startlochern.html>

영국, 미래 혁신 에너지 기술에 3억 7,500만 파운드 투자 발표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7일 발표한 '영국에너지안보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3억 7,500만 파운드 규모의 최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 투자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수소, 원자력에너지 및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같은 분야의 최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여 영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또한 산업부터 발전소, 운송 및 난방까지 에너지 공급 경로를 이러한 신기술을 통해 혁신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한다. 해당 지원책은 수소생산(2억 4,000만 파운드), 소형모듈원전 개발(250만 파운드), 탄소 포집 연구(500만 파운드)에 대한 투자 지원을 포함한다.

<출처>

Government unveils investment for energy technologies of the future, 2022.04.08.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unveils-investment-for-energy-technologies-of-the-future>

노르웨이-스웨덴, 탄소 포집 및 저장 부문 협력 강화 추진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토레(Jonas Gahr Støre) 총리와 스웨덴 막달레나 안데르손(Magdalena Andersson) 총리가 지난 4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담을 했다. 양국 총리는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노르웨이와 스웨덴 간의 이산화탄소 수출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동의했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 대륙붕(NCS) 등지에 영구적인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 개발을 위한 노르웨이와 스웨덴 기업 간에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양국은 각 국가의 기후목표와 북유럽 지역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은 이러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노력에 있어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Norway and Sweden agree to intensify cooperation 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2022.04.07.

<https://www.government.se/articles/2022/04/norway-and-sweden-agree-to-intensify-cooperation-on-carbon-capture-and-storage/>

글로벌 산업정책동향

Europe Weekly Brief - 4월 2주차

발행일 | 2022년 4월

작성자 | 유럽 벨기에 거점 강주석 소장 (kangjs@kiat.or.kr)

문의처 | KIAT 국제협력기획팀 (jskim11@kiat.or.kr)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 본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 본 자료는 GT온라인 홈페이지(www.gtonline.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GT
GLOBAL TECH KOREA Industrial Policy Review
글로벌 산업정책동향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 워싱턴 D.C. 거점
김은정 소장



KIAT
유럽 벨기에 거점
강주석 소장



KIAT
베트남 하노이 거점
임병혁 소장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국 실리콘밸리 거점
박성환 소장



KEIT
유럽 독일 거점
박효준 소장



KORIL(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유럽 이스라엘 거점
최정인 소장